



광남일보



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
식량·농촌정책 전문가...오늘 취임식

7



장흥, 소설가 한승원 문학터 복원 '속도'
사업비 14억 확보...생가 부지 매입 완료

9



영암, 772억 투입 '맞춤형 호도복지' 효과
일자리·통합돌봄·인프라·배움 등 4대 분야

10



'제38회 광주시민대상'에 허정 에덴병원 원장
의료·봉사 등 지역사회발전 공로

13

조간 제7842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윤력 4월 18일)

“호남 민심 움직일 매머드급 공약 필요”

선택! 6·3 대선 D-19

정권교체를 위한 매머드 호남 공약이 절실하다.

진보진영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호남지역 득표율이 역대 대선처럼 과연 90%를 넘을지는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호남에서 역대 대선 투표처럼 투표율과 득표율을 크게 올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자 골목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남위원장인 박지원 의원(목포)은 14일 국회출입 광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지역 선거 상황을 설명하며 “호남 표심을 움직일 ‘메가시티 조성’ 처럼 큰 공약을 가져와 당당하게 요구하고, 호남 인제도 균형인사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공동선 대우원장)과 함께 지난 9월과 10일 이틀간 광주 전역을 돌며 ‘민심 경청투어’를 진행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울)은 “이번 선거는 승률이 90% 이상 되는 상황에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가진 선거”라며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할 매머드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광역 3개 한국기자협회와 지역 연구원 등은 순천에서 모여 지역 의제를 선택해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14일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문화중심도시·한전공대 등 획기적 선물 없어

李 지지 상승 불구...90% 득표율 달성 '난망'

박지원·민형배 “메가시티 조성 등 요구해야”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3개 광역단체가 제각각의 지역 공약을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제안했지만, 판을 흔들만한 이 후보에게 제안했지만, 판을 흔들만한 제안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전공대 설립과 같은 호남인의

표심을 흔들 만한 획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에 AI(인공지능) 총괄 국가기관인 인공지능청 신설, 서남권 메가시티 건설, RE100 전용 에너지자립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이끌 매머드 공약이 절실한 시점이다.

남부권 메가공동체 조성과 국토개발청 설립과, 기후에너지부처를 신설하고 초대 장관에 호남 인사를 중용하는 등의 공약도 거론된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자영업 붕괴 현실로...일년새 1만3000명 감소

지난달 광주·전남 취업자 2만3000명 ↓ 고용한파 지속

광주·전남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동반 감소하는 등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과 내수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가 1만3000명이나 급감했다. 일거리의 질도 나빠져 일용·임시근로자는 늘고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3만명 줄었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발표한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의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7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만5000

명) 줄었다.

이에 따른 고용률은 60.4%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1%p 하락한 수치다.

중사상 지위별로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5000명(19.1%), 임시근로자는 2000명(1.7%) 각 증가했지만 상용근로자가 7000명(-1.6%) 감소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가 1년 전(15만5000명→14만3000명)과 견줘 1만2000명(-7.8%) 줄었다.

실업자는 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29.7%) 증가했다. 실업률은 3.5%로 0.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남의 경우 15세 이상 취업자는 100만8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8000명(-0.8%) 감소했다.

고용률은 66.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다. ▶2면에 계속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도청앞 시민 죽음 못 막아 후회”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

도청 시민군과 생사고락

5·18. 부당한 권력의 항쟁



14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데이비드 돌린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민의 몸부림이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가 45년 만에 광주시민이 됐다.

▶관련기사 5·11·14면

14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은 이날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돌린저의 공로를 인정해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 시민증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돌린저는 “1980년 5월은 자신을 다시 깨어나게 한 날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5월 24일 밤, 도청에서 군 도항 파악용 무선 감청을 하며 신군부의 불시 공격에 대비하면서 퇴역 군인, 대학생 2명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퇴역 군인은 자녀를 위해, 대학생들은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전하기 위해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다. 이들의 모습은 내가 당시 광주시민의 희생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록병원에서 한 의사가 보여준 환자의 X-레이 사진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총탄이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엉덩이로 관통한 모습의 X-레이 사진을 보고, 신군부의 시민군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돌린저는 “환자에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쏜 총상의 흔적이 있었다. 당시 도청 인근 건물이 높지 않아 헬기에서 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목격하진 못했지만 헬리콥터가 도청 주변에서 맴돌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헬기 사격

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18폭동” 등 일각에서 여전히 주장하는 왜곡과 편향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폭동이라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 5·18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한 항쟁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돌린저는 항쟁 마지막 날 시민군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울먹였다.

돌린저는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도청 앞 시민들의 죽음을 막지 못해 지금도 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명예시민증을 받은 돌린저는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광주에 머물렀다.

80년 5월16일 금요일 결핵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영암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에 온 그는 18일 일요일 아침, 계영령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같은 미국평화봉사단이었던 팀 원 버그에게 계영군이 얼마나 잔혹하게 광주시민을 진압하고 있는지 들었다.

영암으로 돌아간 돌린저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영군의 집단 발포가 자행됐던 21일 다시 광주로 향했다.

24일 '5·18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군과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